



序 文

한 개인이나 한 家門이나 모두 그 所從來의 根源이 있는 것과 같이 氏族이나 國家도 그 所從來의 根源이 있다. 이러한 所從來의 由來가 家門에 있어서는 家譜가 되는 것이며 氏族에 있어서는 族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氏族은 1960年の 人口調査에 의하면 258姓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적어도 258姓의 族譜가 있게 되나 한 姓氏에도 本貫과 分派의 異同에 따라 다시 數個乃至 數百의 氏族으로 區分되는 것이므로 實際로는 壹千餘氏族의 族譜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많은 族譜中에 金氏姓의 本貫이 그 數가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499本으로 되어있고 또 『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623本으로 되어있으니 金氏族譜가 單一同姓의 族譜로서는 가장 獨立된 本貫이 많은 族譜를 가지고 있다. 本貫이 많을 뿐만 아니라 人口나 家口로 보아도 金氏는 斷然 우리나라 最多人口와 家口를 갖고 있다. 前記와 같은 1960年度의 統計에 의하면 家口는 95萬餘家口에 달하며 人口는 540萬名에 이르니 南韓을 基準으로해서 金氏人口가 이나라 總人口의 20%強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

最大姓氏인 金氏의 本貫은 數百本으로 되어있지만 其實은 駕洛國의 始祖인 首露王의 後孫과 新羅王國의 金闕智 後孫으로 兩分되어 있다. 首露王 後孫은 金海金氏를 大宗으로 하고 있으며 金闕智의 後孫은 慶州金氏를 大宗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編纂되는 新羅金氏二千年史는 金闕智의 後孫이 되는 300餘本の 金氏本貫과 이 金氏後孫에서 分派해서 獨立한 異姓即 安東權氏 光山李氏 隋城崔氏 甘泉文氏 鐵原弓氏 江陵王氏 泰安舍氏 등의 同族族譜를合해서 新羅金氏系의 모든 氏族의 大同譜가 되는 것이다.

新羅金氏는 始祖 闕智公의 7代孫이 末鄒王으로서 新羅13代王位에 오르면서 王族이 되었으며 新羅時代에 이미 江陵金氏, 光山金氏, 順天金氏등이 派生되었고 新羅王의 56代王이된 敬順王은 九兄弟를 두었는데 이 九兄弟中에서 扶寧金氏 羅州金氏 慶州金氏 義城金氏 後江陵金氏 彦陽金氏 善山金氏 蔚山金氏 등이 派生하였다. 또 이 金氏등에서 다시 牛峰金氏 安東金氏(淑承系) 全州金氏 金寧金氏 靈光金氏 安山金氏 廣州金氏 三陟金氏 淸風金氏 延安金氏 金海金氏 水原金氏 등이 派生하여 獨立된 本貫을 가졌다고 하니 敬順王때에 와서 後孫이 많이 繁昌한 것이다. 그러나 金闕智公의 後孫이라고 하는 金氏本을 가진 氏族이 많이 있으나 이中에는 昭穆이 分명한 金氏가 있는 反面에 分明치 않은 金氏도 많이 있다. 이는 長久한 歲月을 두고 研究해서 밝혀낼 課題가 될 것이다. 모든 氏族이 同一한 문제를 가진 것은 같은 祖上의 後孫이면서도 昭穆이 단지 않는 문제이다.

金氏가 大姓이고보니 이러한 문제는 더욱 많다. 더구나 昭穆문제만이 아니라 金氏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즉 金海金氏가 首露王系의 大宗이지만 新羅金氏의 後孫中에도 金海金氏의 本貫을 가지는 氏族이 있는가하면 高靈金氏 咸昌金氏등의 경우도 典故大方 萬姓大同譜 朝鮮名臣錄에 首露王系로 나타나 있으나 金闕智系에도 있으니 이러한 문

제는 앞으로 더욱 研究해서 밝혀내야할 課題가 될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長久한 歲月을 두고 내려오는 동안 人間이나 氏族에게는 屈伸이 있는 法이며 또 兵亂등을 겪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不幸不遇한 때를 당해서 中間에 系譜를 잃는 失傳상태가 생겨나는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中間에 失傳되었다고 해서 그 氏族이 같은 祖上의 後孫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번 에 이 책이 모든 新羅金氏를 總網羅한 까닭은 祖上을 같이하는 氏族은 모두 同祖同根인 때 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新羅金氏의 모든 系統을 調査하고 詳考해서 連結되는 것은 連結시켜서 系統을 당게 하였으며 여러 本貫을 가진 金氏族譜를 相互對照해서 300 余本の 新羅金氏系統을 밝히고 또 昭穆이 맞지 않더라도 同祖同根임을 밝히기 위하여 總 新羅金氏의 統合同源譜를 編纂하게 되었다. 이러한 事業은 元來 어려운 事業으로서 長期間의 研究 調査가 必要한 것이다. 이번에 이러한 事業을 數年에 걸쳐서 完成한 金憲範甫 金英根甫등 의 努力은 참으로 敬賀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事業은 單純한 한 氏族의 譜系를 밝히는 문 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最大姓氏인 金氏의 系統을 밝히고 數百本에 達하는 金氏相互間의 關係를 알게하고 또 異姓이면서도 金氏에서 派生한 姓氏는 同源임을 알게하는 同時에 우리 나라 族譜學研究에 一大轉機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니 이 事業이야말로 氏族史研究에도 크 게 寄與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新羅金氏의 分派인 慶州金氏 安東金氏 延安金氏 淸風金氏 義城金氏 善山金氏 光山金氏등을 비롯해서 安東權氏등은 朝鮮朝 500年동안 많은 王妃를 비롯해서 宰相과 將相 그리고 文衡 大儒등을 輩出한 氏族이니 이러한 新羅金氏의 系統을 研究整理한다는 것은 이나라 歷史의 研究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비단 新羅 金氏의 同源임을 밝히는 事業이 될뿐만 아니라 이나라 國史의 研究에도 큰 資料가 되는 것 이니 이 事業이야말로 우리나라 政治文化史的으로 매우 意義깊은 일이다. 아무쪼록 이 大 譜冊이 金氏門中뿐만 아니라 이나라 國學者들이나 族譜學界를 위해서 많이 活用되기를 바 랄 뿐이다.

詞伯 金龍國甫와 編纂委員會代表 金憲範甫의 請托으로 菲才를 돌보지 않고 삼가 몇字 적 어서 序文으로 삼는 바이다.

戊午年 臘月 於尚雲書室

法學博士·前國會圖書館長 姜 周 鎭 謹記

發 刊 辭



新羅金氏는 昔脫解王 即位 9 年 3 月 (西紀65)에 現慶州 金城西쪽 始林(雞林)에서 誕生하신 新羅大輔公 金闕智의 血統을 이어받은 後裔이다.

우리 始祖이신 金闕智가 金櫃에서 나왔음을 인하여 姓을 金氏라하였고 그의 7世孫인 미추(味鄒)가 新羅第13代 王位에 오르니 新羅 朴·昔·金 三姓의 歷代 56王中 우리 金氏가 38王으로 在位587年이며 新羅千年의 燦爛한 歷史를 지낸 王子 王孫의 後裔로서 高麗 朝鮮 兩朝를 通하여 수 많은 名賢과 忠國愛族의 將相烈士를 輩出하여 民族史上 悠久한 光榮을 綿綿히 繼承하여온 後孫들인바 歷史의 發展을 거듭하여오는 동안에 大輔公 金闕智의 後裔로서 國家에 有功하여 賜姓을 받은 安東權氏 光山李氏 隋城崔氏 甘泉文氏 鐵原弓氏 江陵王氏 泰安舍氏 등이 있으며 各種 文獻에 依하면 同祖에서 約500餘姓貫으로 分派되어있다. 이로인해 姓貫이 다르면 他人視하여왔지만 姓貫이 달라도 根源을 알고 派系를 찾아 보면 遠近親은 있지만 한 血孫인 것이다. 族譜란 한 氏族의 歷史로서 綿綿히 代를 이어 縱으로 世系와 祖先의 事蹟을 記述하고 橫으로 遠近의 宗族系列을 收錄하여 위로 祖先을 이어 받들고 아래로 子孫들에게 傳知하여 줌으로써 後孫들이 自己의 根源世系를 알며 尊祖睦族의 文獻의 바탕을 삼는 것이다.

마치 뿌리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고 水源이 없는 河川이 흐를 수 없는 것과 같이 姓貫을 가진 氏族이라면 根源과 派系가 있는 것이다. 新羅金氏는 우리 나라에서 第一 大姓으로 駕洛國 系統 金海金氏와 日本人으로서 王亂때 歸化하여 賜姓을 받은 金海金氏 등을 除外하고는 大輔公 金闕智의 後裔인 바 수 많은 分派間에 서로 根源과 世系를 알지 못하는 後孫들이 적지않다. 그러므로 後孫들의 淵源世系를 찾는데 價値觀을 發見하고 우리 始祖이신 大輔公 金闕智에서 分派된 姓貫을 總網羅하여 한 血族의 모임이 集大成하여 子孫萬代까지 繼繼承承 傳知하게 된 한編의 家寶典을 이룩하게 되니 이것이 곧 新羅金氏二千年史이다.

歷史의 發展을 거듭하는 동안에 文字로 表現한 것이 記錄에 依해서 過去의 歷史를 알고 그것을 거울삼아 現在를 發展시키는 것과 같이 始祖의 根源과 事蹟을 文字로 錄記함으로서 文獻의 바탕을 삼아 宗族의 根源과 系統을 찾는데 거울이 될 것이다. 이 寶典을 發刊하고자 1976年 九月에 첫발을 내딛어 于先 各 門中의 族譜를 爲始한 其他 各種 參考資料 發掘에 最善을 다하여 비로소 發刊 하기에 이르렀으나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族譜가 있는 宗派의 收錄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各種 文獻에 記錄되어 있는 小宗派를 考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예를 들면 大輔公 또는 某王의 後孫이라고만 記錄되어 있기 때문에 淵源詳考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記錄되어 있는 事蹟과 年代를 詳考하여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記錄이 있었다. 그러므로 史的 근거없이 事蹟을 記錄하는 것은 祖先을 모독하는 것이며 祖先의 事蹟과 年代를 史的 근거에 依하여 記錄함으로서 後世들의 淵源世系를 詳考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今般 收錄過程에서 未不明한 淵源世系를 찾지 못한 宗派가 많으나 그 반면 淵源世系를 찾은 宗派 또한 적지않다.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經費 調達에 어려움이 있어서 淵源이 未不明한 宗派를 찾아서 詳考하는데 盡力하지 못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收錄한 宗派數는 332姓貫에 이르며 收錄過程에 있어서 未洽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니 그 未洽한 문제점을 補完하려면 앞으로 많은 연구가 거듭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宗族의 家寶典이 될 수 있는 新羅金氏二千年史가 數年間의 結實로 完成을 보게되니 無限한 기쁨을 금할수 없는 同時에 艱歲月속에서 許多한 어려움과 形言할 수 없었던 고통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

發刊하는데 數年동안 苦樂을 같이하면서 유종의 美를 거두게 한 金英根(寧海人)宗親께 致賀 드리며 또한 많은 經費를 들여서 歷代王陵 사진蒐集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金容模 宗親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收錄過程에 資料를 提供하여주신 各宗中 宗親僉位께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79年 1月 日

編著(慶州人) 金 憲 範